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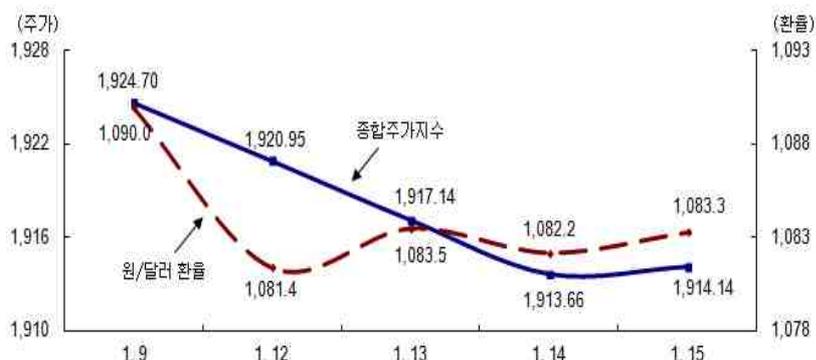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수출 시장 점유율로 살펴본 중국 제조업의 위협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9~1.15)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수출 시장 점유율로 살펴본 중국 제조업의 위험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백 다 미 선임 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 수출 시장 점유율로 살펴본 중국 제조업의 위협

■ 개요

최근 한국 수출 둔화 원인으로 주력 산업의 수출 기여율 급락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최근 3년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특히 주력 산업의 수출 기여율은 2011~13년 -114.4%로 금융위기 이전(2006~08년) 100.5% 대비 급락했다. 반면 중국은 해당 산업의 수출기여율이 동기간 41.3%로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수출시장 점유율을 통해 한국의 주력 산업별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과 중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 비교

(자동차) 글로벌 브랜드가 부재한 중국 대비 한국의 경쟁력은 비교 우위에 있으나 자동차 부품은 경합중이다. 2013년 자동차(전체)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5.8%로 중국(3.2%) 대비 높다. 부문별로는 완성차가 한국이 5.5%로 중국 1.6% 대비 우위이나, 자동차 부품은 중국이 6.9%로 한국(6.4%) 대비 소폭 높다.

(IT)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 및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축적하며 IT 산업 전 부문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다. **(부문별)**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약 8%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수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고부가가치 품목인 시스템반도체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은 2010년 이후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중국은 증가하면서 양국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013년 59.5%로 매우 높아 최근 중국의 정부 지원 및 업체 성장이 한국 수출에 추가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무선통신기기도 글로벌 생산기지화로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확대됐지만 한국은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기업 경쟁력 강화로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반면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폭은 감소세이다.

(조선) 현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1위이나 최근 중국의 수주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는 등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2013년 수출시장 점유율은 25.8%로 2위 중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었으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약 0.7%p 앞섰다. 특히 최근 2년간(2012~13년) 중국의 조선 수주량이 한국보다 높아 향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문제가 지속되면서 세계시장 규모 자체가 위축된 이종고에 직면하고 있다.

(석유화학)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위로 2위 중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2013년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5.7%(세계 8위)로 2위 중국과의 격차가 2005년 0.6%p에서 2013년 4.0%p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석유화학의 대중국수출의존도는 60.4%(2013년)로 주력 산업 중 가장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추가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철강) 양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한국은 저부가가치 품목, 중국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철강 산

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며 2013년 현재 1위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위축 시기에 한국은 일반 철강 중심으로 점유율을 1.6%p 확대한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인 철강 제품 점유율이 2.9%p 확대됐다.

(기계) 한국의 경쟁력은 정체된 반면 중국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어 수출 증가 및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2%대로 유사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 11.4%까지 상승하며 세계 3위로 부상하면서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반면, 한국은 9위로 정체된 가운데 최근 2년간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를 보였지만 이는 국내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수입 둔화로 판단된다.

(석유제품)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중국 대비 우위에 있으나 양국 모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각각 2.0%와 1.3% 수준으로 10위권 밖이며 양국 모두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과의 산업 경쟁력 비교) 한국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IT산업은 시장 경합이 치열하고 조선·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은 경쟁 열위로 시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 한국과 중국의 주력산업별 수출시장 점유율(2013년) >

(%, 순위, %p)

	자동차	IT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석유제품
		반도체	유무선통신	디스플레이						
한국 (%)	5.8	7.3	8.9	5.9	15.3	25.8	5.7	4.8	2.9	2.0
세계 순위	5위	2위	4위	3위	2위	1위	8위	6위	9위	15위
중국 (%)	3.2	31.7	19.4	40.5	28.5	20.7	9.7	13.8	11.4	1.3
세계 순위	11위	1위	1위	1위	1위	2위	2위	1위	3위	21위
점유율 격차 (한국-중국) (%p)	2.6	△24.4	△10.6	△34.6	△13.2	5.2	△4.0	△9.0	△8.5	0.8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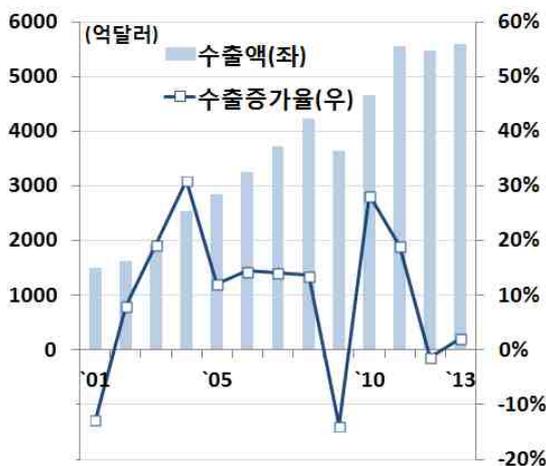
■ 시사점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주력 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둘째**, 핵심 신소재·부품, 융복합 신기술 제품 등 신성장 제조업을 육성하여 추격이 어려운 신규 주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산업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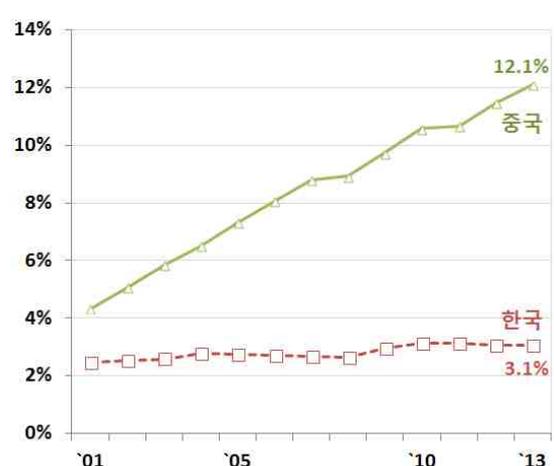
- (문제 제기) 최근 한국 수출 둔화 원인으로 주력 산업¹⁾의 수출 기여율 급락이 제기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산업이 총수출을 견인하며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
 -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최근 10년래 최하위
 - 한국 수출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고 2010년과 2011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그러나 최근 수출 증가율이 2012년 -1.3%, 2013년 2.1%, 2014년 2.4%에 그치면서 총수출 정체
 - 이에 따라 2013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4%p로 2009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래 가장 낮아짐
 -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국은 정체된 가운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대외 영향력이 확대
 -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8년 2.6%에서 2010년 3.1%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지금까지 정체 상태
 - 반면 중국은 2009년 9.7%로 세계 수출 시장 1위를 기록한 이후 2위 국가와 격차를 점차 확대하면서 1위 지위를 견고화

< 한국 총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 >



자료 : UN.

< 한중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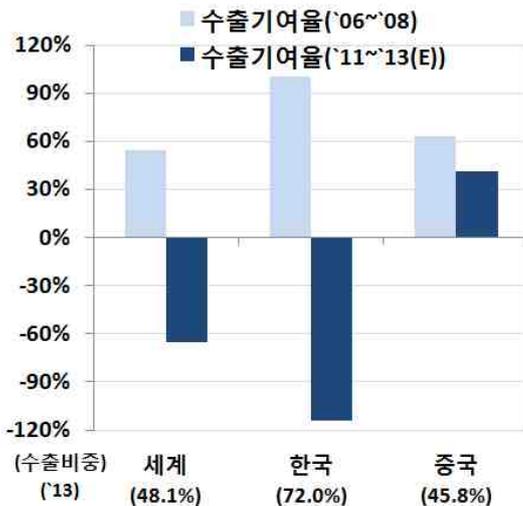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1) 주력산업은 자동차·철강·IT·조선·석유제품·석유화학·기계를 포함.

- 특히 한국은 주력 산업의 수출 기여도가 급락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
 - 2006~08년 한국 주력 산업의 수출기여율은 약 100.5%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13년에 주력산업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수출기여율이 -114.4%로 급락
 - 전 세계적으로 해당 산업의 수출기여율이 동기간 54.7%에서 -65.4%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나 중국은 동기간 63.1%에서 41.3%로 여전히 총 수출을 견인
- 반면 중국은 국내 주력 산업의 비교우위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교우위에 근접
 - 비교우위지수²⁾를 통해 해당 산업의 비교우위 혹은 비교열위 여부를 분석한 결과,
 - 2013년 중국 주력산업 비교우위지수가 0.97로 1에 근접하며 비교열위 개선

< 한·중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 및 기간별 수출기여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주 : 주력산업은 자동차·철강·IT·조선·석유제품·석유화학·기계를 포함.

< 한·중 주력 산업의 비교우위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분석 방법) 수출시장 점유율을 통해 한국의 주력 산업별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³⁾

2)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해당 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국가의 총 수출에서 해당 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정의됨. 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일 경우 일국의 해당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며, 1 이하일 경우 비교열위 상태라고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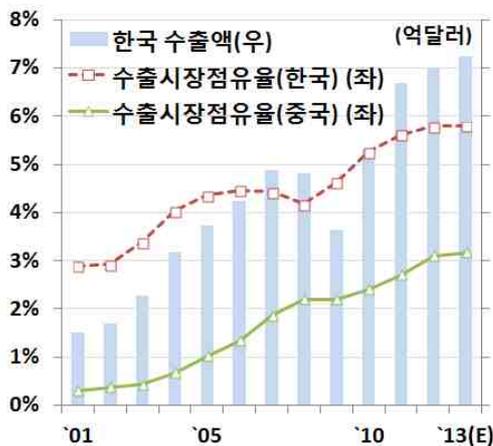
3) 세계 시장 규모 추정 및 중국과 비교를 위해 HS코드를 이용하여 산업별 수출 규모를 분석.

2. 한국과 중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 비교

① (자동차) 글로벌 브랜드가 부재한 중국 대비 한국의 경쟁력이 비교 우위에 있으나 자동차 부품은 경합

- 세계 자동차 수출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가 부재한 중국 대비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우월한 것으로 판단
 - 자동차(전체)의 세계 수출시장 규모는 2013년 1조 2,500억 달러 규모로 2011년에 금융위기 충격 이전 수준인 2008년 시장 규모로 회복한 이후 2013년 3.7%로 소폭 성장
 - 세계 시장이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수출시장 점유율이 2008년 4.2%에서 2013년 5.8%까지 확대
 -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독일(18.7%), 일본(11.5%), 미국(10.1%) 대비 낮으나 중국(3.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부문별로는 완성차는 한국이 중국 대비 우위이나, 자동차 부품은 한국과 중국이 경합
 - 자동차를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으로 구분 시, 완성차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3년 한국 5.5%, 중국 1.6%로 한국이 우위
 - 그러나 자동차부품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중국이 6.9%로 한국(6.4%)를 추월
 - 2014년 상반기에도 한국의 완성차 수출액은 중국 대비 3.8배 많았으나,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중국 대비 약 0.9배에 불과

<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부문별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② (IT) 중국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IT 산업 전 부문에서 한국과 경쟁4)

○ 반도체: 최근 중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확대

- 세계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약 8%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반도체 산업의 수출시장 규모는 2013년 5,700억 달러 규모로 금융위기 충격 시기인 2008~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8.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중국 역시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2013년 약 19.4%까지 점유율 상승

- 부문별로는 양국간 메모리 반도체 격차는 유지된 가운데 최근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수출에 집중하는 사이 고부가가치 품목인 시스템반도체에서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증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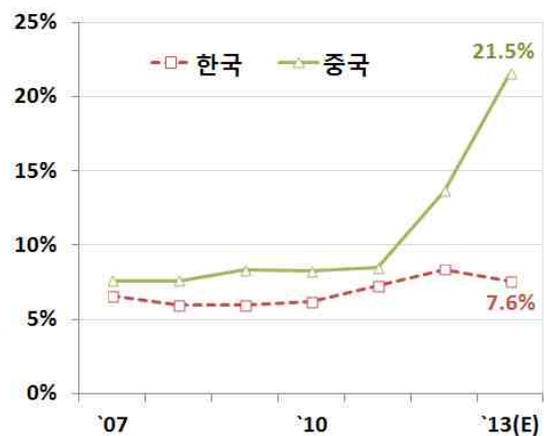
- 2013년 메모리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13.7%, 중국이 24.0%로 약 8~10% 수준의 점유율 격차를 지속
- 중국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인 시스템 반도체 수출에 집중하면서 양국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2011년 1.2%p에서 2013년 13.9%p까지 확대

<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한국과 중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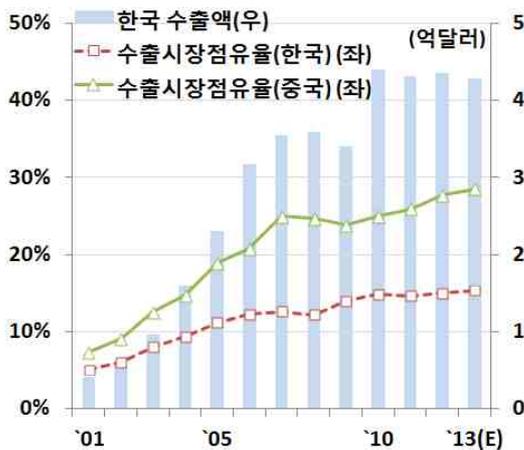
4) IT산업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화로 인해 수출시장점유율을 통해서만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시장조사기관의 세계시장점유율을 함께 제시.

5) 시장조사기관 IHS에 의하면 중국은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부문에서 미국,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의 시장 점유율(7.0%)을 기록했으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1%에 불과.

○ 디스플레이: 한국의 수출 규모가 정체 상태인 가운데 중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며 점유율 격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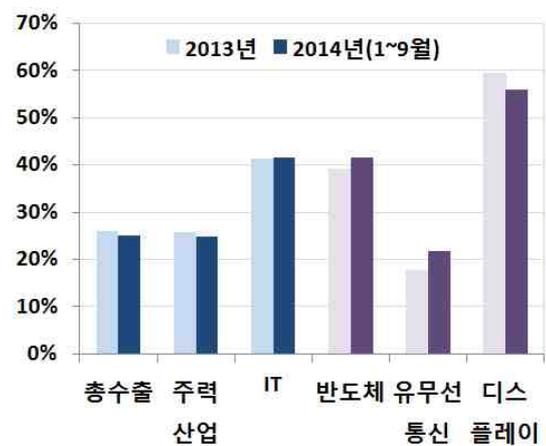
- 한국의 수출 규모가 2010년 이후 정체 상태인 가운데 중국 수출은 증가세
 -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규모는 2013년 2,800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정체 상태인 가운데,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3년 15.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2013년 수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1.6% 감소⁶⁾
 - 최근 중국은 TV, 모바일기기, PC 등 세계 최대 수요시장을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3년 점유율은 28.5%를 기록⁷⁾
- 디스플레이는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최근 중국의 정부 지원 및 업체 성장이 한국 수출에 추가적 위협으로 작용
 - 디스플레이 산업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013년 59.5%, 2014년(1~9월) 55.9%로 IT산업 평균(2013년 41.3%)을 상회
 - 디스플레이의 높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수록 중국 내수 시장의 국산화 진행이라는 추가적 위협으로 작용
 - 2014년 상반기 한국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약 2,000만 달러에 머무르며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상반기 수출액을 기록

<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디스플레이 산업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KITA 자료 이용).
 주 : 주력산업은 자동차·철강·IT·조선·석유제품·석유화학·기계를 포함.

6) 시장조사기관 DisplaySearch에 의하면 대형LCD패널(14.1Q)은 한국 47.8%, 중국 9.9%, 중소형 LCD패널(14.2Q)은 한국 38.4%, 중국 13.7%로 한국의 시장점유율 우위.

7)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요처인 TV 및 모바일기기 분야에서 중국이 약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2015년까지 LCD패널의 자급률 목표치를 80%로 설정하고 운영자금 지원 및 출자 집행, 32인치 이상 LCD관세율을 5%로 인상 등)등에 힘입어 중국 업체 성장

○ 유무선통신기기: 글로벌 생산기지화로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지속되며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한국은 하락

- 유무선통신기기는 세계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확대
 - 세계 유무선통신기기 수출시장은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여타 산업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성장
 - 중국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2013년 수출 시장 점유율은 40.5%를 기록8)
 - 반면 한국의 수출액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2007년 11.1%에서 2013년 5.9%로 하락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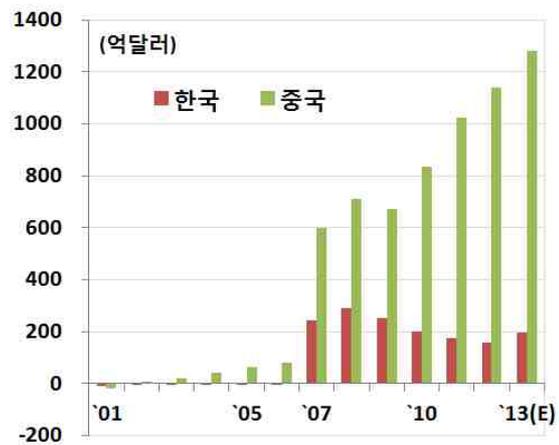
-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감소세
 -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역할을 수행하여 기술력을 축적하고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무역 수지 흑자폭이 확대
 - 한국의 2013년 유무선통신 산업 무역 수지는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흑자폭이 감소세임

< 한국과 중국의 유무선통신기기 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한국과 중국의 유무선통신기기 산업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8) 시장조사기관 SA에 의하면 2014년 2분기 기준 한국 업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30.1%로 전년동기대비 -7.7%p 하락한 반면, 중국 업체는 17.3%로 전년동기대비 5.9%p 상승.

9) 유무선통신기기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은 중국 등 생산기지 이전에도 수출시장 점유율이 7%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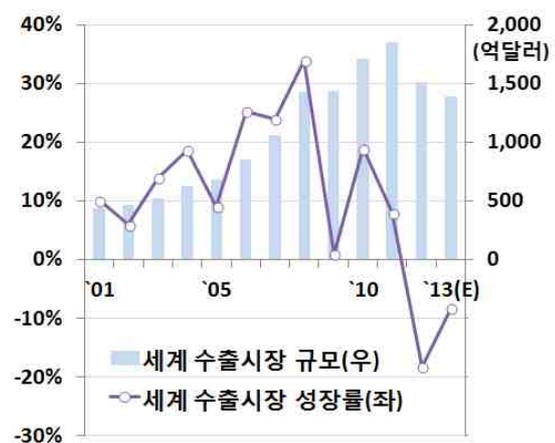
③ (조선) 한국이 수출 시장 점유율 1위이나 최근 2년간 중국 수주규모가 한국을 추월하는 등 양국의 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축소

- 현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1위이나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특히 최근 2년간 중국의 수주량이 한국을 추월
 - 한국 조선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0.7%에서 2009년 29.5%까지 상승하면서 기존 선도 주자였던 일본을 추월¹⁰⁾
 -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2012년 수출시장 점유율이 한국 25.0%, 중국 25.7%를 기록하는 등 양 국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¹¹⁾
 - 중국의 조선 수주량이 2012~13년 2년 연속 한국을 추월했으며¹²⁾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까지 약 3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의 추월 가능성은 높음
- 조선 산업은 공급과잉문제가 계속되면서 세계 수출 시장 규모 위축 지속
 - 세계 조선 수출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위축되지 않고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 회복 둔화, 글로벌 교역 위축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로 연결
 - 이에 한국 조선 산업은 세계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과잉과 중국 추격의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

< 한국과 중국의 조선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 조선산업 세계수출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10) 일본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11) 2013년 양 국의 시장 점유율은 한국 25.8%, 중국 20.7%.

12) 조선 수주량(천CGT, Lloyd's): ('12) 한국 6,823 중국 8,110 → ('13) 한국 15,553 중국 17,671

④ (석유화학)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위로 2위 중국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對중국시장의 높은 의존도 및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최근 수출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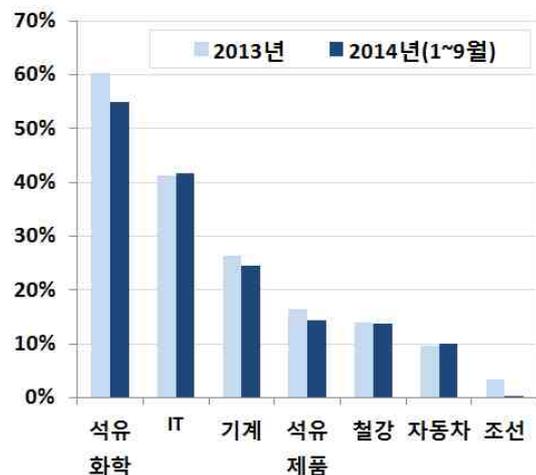
- 한국은 수출시장 점유율 8위로 2위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
 - 석유화학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과 중국이 3~4% 대로 비슷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2013년에는 9.7%로 세계 1위 미국의 점유율 미국 10.7%에 육박
 - 한국은 2013년 약 5.7%로 세계 8위 수준이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는 2005년 0.6%p에서 2013년 4.0%p까지 확대됨
- 특히 한국 석유화학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중국 내수시장의 국산화에 따른 추가적인 위협 존재
 - 2013년 석유화학의 對중국수출의존도는 60.4%로 주력 산업 중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음
 - 따라서 중국 석유화학의 경쟁력 강화는 곧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됨을 의미
 - 최근 한국의 석유화학 수출은 2013년 1분기 이후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1%를 기록한 반면, 중국의 석유화학수출은 2012년 4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임

< 한국과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주력산업별 對중국수출 의존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KITA 자료 이용).

주 : 대중국수출 의존도

= 산업별 對중국수출/산업별 對세계수출.

⑤ (철강) 양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한국은 저부가가치 품목, 중국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¹³⁾

-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며 2013년 현재 1위와 6위를 기록
 - 세계 철강(전체) 수출 시장은 2008년 역대 최대치인 8,20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13년 약 7,000억 달러로 약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013년 중국 철강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13.8%로 2008년 대비 1.4%p 상승했고 한국도 2013년 4.8%로 동기간 1.1%p 높아짐
- 그러나 한국은 일반 철강 중심으로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인 철강 제품 중심으로 성장
 - 전체 철강 산업을 일반철강과 철강제품으로 분류 시,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철강제품¹⁴⁾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2008년 대비 2013년 2.9%p 상승한 반면, 한국은 0.7%p 상승에 그침
 - 또한 동기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철강은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1.6%p 상승한 반면, 중국은 -0.5%p로 오히려 하락
 - 2014년 상반기에는 중국이 전년동기대비 일반 철강 수출액이 29.2% 증가하며 한국(4.6%) 대비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의 철강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한국과 중국의 철강산업 부문별 수출시장점유율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주 : 2008년 대비 2013년 시장점유율 격차.

13) 철강 산업을 선철 및 반제품 중심의 일반철강(HS 72)과 반제품을 가공한 철강제품(HS 73)으로 구분하여 분석.

14) 한국의 2013년 철강 수출의 평균 단가 : 일반 철강 0.86\$/kg, 철강제품 2.01\$/kg

⑥ (기계) 한국의 경쟁력이 정체된 가운데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며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

- 세계 수출시장의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9위로 정체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 기계 산업의 세계수출시장 규모는 2013년 약 1조 8,3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최근 2년간 성장률이 제로 수준으로 정체(2012년 0.0%, 2013년 1.6% 성장)
 -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중반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1년 2.8%, 2013년 2.9%로 세계 9위를 기록
 - 반면 중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과 유사했지만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13년 기준 11.4%로 세계 3위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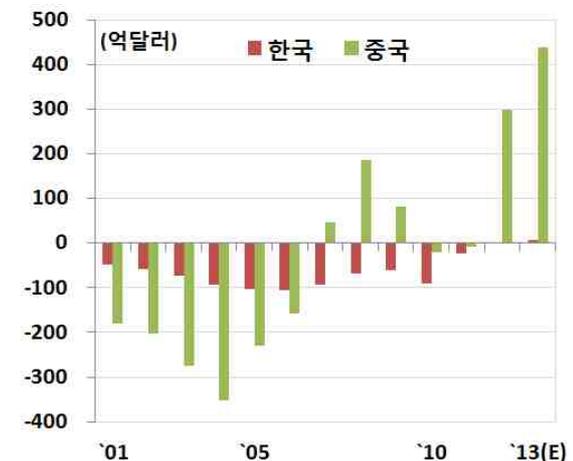
- 중국 무역수지는 큰폭의 흑자 추세로 전환된 반면, 한국은 최근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국내 설비투자 위축으로 수입 둔화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
 - 중국 기계 산업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 기간을 제외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적자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역대 최대 무역 수지를 기록
 - 반면, 한국은 2011년까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2년간 무역 수지가 소폭 흑자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출 규모가 정체된 가운데 수입이 둔화되어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

< 한국과 중국의 기계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한국과 중국의 기계산업 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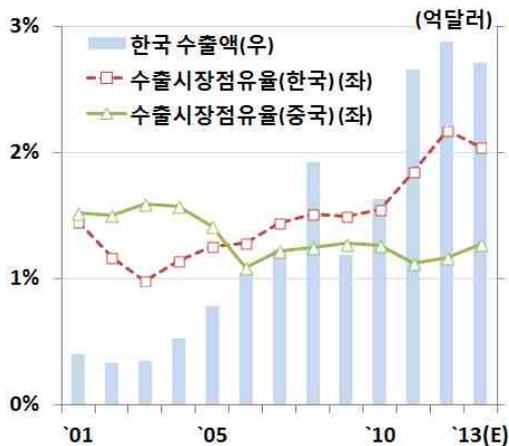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⑦ (석유제품)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중국 대비 우위에 있으나 양 국 모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열위이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확대

-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중국보다 높지만 양 국 모두 세계 10위권 밖으로 경쟁력이 열위
 - 석유제품 산업의 세계수출시장 규모는 2013년 약 2조 6,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성장세가 정체되며(2012년 -7.6%, 2013년 0.2%)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한국은 세계 시장 성장에 맞춰 매년 30% 전후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시장 규모 급락에 따라 2012년 8.3%, 2013년 -5.9% 성장에 그치며 2013년 수출시장 점유율 2.0%(15위)를 기록
 - 2013년 중국 역시 수출 시장 점유율이 약 1.3% 수준에 머무르며 세계 21위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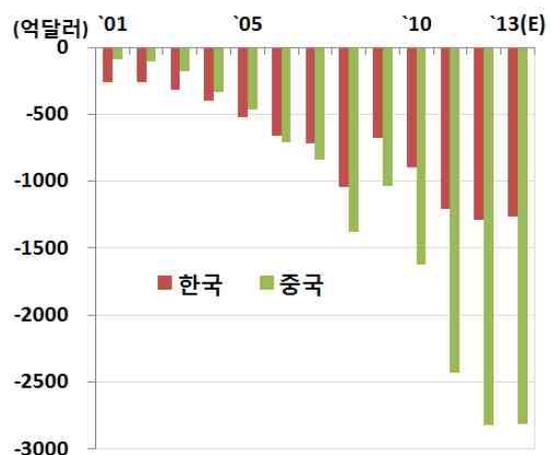
- 한국과 중국 모두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확대
 - 한국의 2013년 석유제품산업 무역 수지는 약 -1,260억 달러로 2000년대 중반 이후 -1,000억 달러 전후의 적자를 기록
 - 중국의 2013년 석유제품산업 무역 수지는 약 -2,810억 달러로 2010년의 -1,620억 달러 대비 약 1.7배 증가

< 한국과 중국의 석유제품산업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 한국과 중국의 석유제품산업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3. 정리 및 시사점

- (중국과의 산업 경쟁력 비교) 한국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IT산업은 시장 경합이 치열하고 조선·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은 경쟁 열위로 시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 (경쟁 우위 확보)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 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범용 부품에서는 한·중 간 격차가 빠르게 축소
 - 자동차(완성차)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중국 대비 우위를 기록
 - 그러나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범용 부품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합이 진행
- (시장 경합 치열) IT 산업은 중국이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거대 내수 시장 및 정부 지원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경합이 치열¹⁵⁾
 - (반도체) 한국이 시장 호황을 바탕으로 메모리반도체 부문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인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주력
 - (유무선통신) 유무선통신은 중국 제품이 자국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 수출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정부가 고가의 스마트폰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추격이 거세질 전망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과반을 상회하며 중국은 TV, 모바일기기 등 산업 수요처에서 자국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디스플레이패널의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음
- (경쟁 열위 및 산업 구조 개편 시급) 조선·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은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한국과 유사하거나 이미 추월하여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
 - (조선) 중국과 점유율 차이가 거의 없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중국의 수주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문제가 지속되면서 세계 시장 규모 자체가 위축된 이종고에 직면¹⁶⁾

15) IT 산업은 수출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경쟁 우위에 있으나, 중국 시장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시장 점유율만을 기준으로 산업 경쟁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및 성장 추세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진단.

16) 조선 산업은 2013년 기준으로는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중국 대비 우위에 있으나 최근 10년간 한국의

-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특히 대중국수출의존도가 60%에 육박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세계 시장에서의 추격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의 국산화에 따른 추가적인 위협이 존재
- (철강) 양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철강 산업의 세계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인 일반 철강의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인
- (기계)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반면, 중국은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며 무역 수지가 흑자세로 전환

< 한국과 중국의 주력산업별 수출시장 점유율(2013년) >

(%, 순위, %p)

	자동차	IT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석유제품 17)	
		반도체	유무선 통신	디스 플레이						
한국 (%)	5.8	7.3	8.9	5.9	15.3	25.8	5.7	4.8	2.9	2.0
세계순위 (위)	5위	2위	4위	3위	2위	1위	8위	6위	9위	15위
중국 (%)	3.2	31.7	19.4	40.5	28.5	20.7	9.7	13.8	11.4	1.3
세계순위 (위)	11위	1위	1위	1위	1위	2위	2위	1위	3위	21위
점유율 격차(%p) (한국-중국)	2.6	△24.4	△10.6	△34.6	△13.2	5.2	△4.0	△9.0	△8.5	0.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 IMF 자료 이용).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2012년은 중국이 한국 대비 약 0.7%p 앞서 경쟁열위 산업으로 진단.
 17) 석유제품 산업은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중국 대비 우위에 있으나 양 국 모두 10위권 밖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입 수요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중국과의 산업 경쟁력 비교 대상에서 석유제품 산업은 제외.

○ 시사점

첫째,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주력 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데 이어 최근에는 기술경쟁력도 상승하고 있어 한국은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저가의 범용제품보다는 중국과의 기술경쟁력 격차 확대 등 비가격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함
- 한국 주력 산업의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 확대, 연구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원천·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기술·고부가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함

둘째, 핵심 신소재·부품, 융복합 신기술 제품 등 신성장 제조업을 육성하여 추격이 어려운 신규 주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기존 주력 산업은 대부분 중국의 추격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넘어 중국이 단기간에 추격하기 어려운 신규 주력 산업을 확보해야 함
- 생명과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 다양한 신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관련 신기술 개발과 기술 표준 선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동시에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충, 벤처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금융 지원 확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셋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산업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 중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 주력 산업의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
- 특히 석유화학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고 있어 중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진행에 따른 국내 업체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 이에 따라 중국 이외의 ASEAN, 중동 등 새로운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9	2.7	1.8	4.5	3.5	2.2	-2.1	4.6	5.0	-	3.1
유로 지역	-0.4	-0.2	0.3	0.1	0.3	0.8	0.3	0.1	0.2	-	1.3
일본	1.7	1.5	0.7	0.4	-0.4	0.9	1.4	-1.7	-0.5	-	0.8
중국	7.7	7.7	7.5	7.8	7.7	7.4	7.4	7.5	7.3	-	7.1

주 : 1) 2014년과 15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과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6월말	12월말	1월 8일	1월 1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03	2.53	2.22	1.96	1.72	-0.24 %p
	엔/달러	105.04	101.44	119.46	119.30	117.27	-2.03 ¥
	달러/유로	1.3799	1.3645	1.2159	1.1833	1.1789	-0.0044 \$
	다우존스지수(p)	16,577	16,827	17,823	17,908	17,321	-587 p
	닛케이지수(p)	16,291	15,162	17,451	17,167	17,109	-58 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6	2.68	2.10	2.07	2.04	-0.03 %p
	원/달러(원)	1,055.4	1,011.8	1,099.3	1,096.9	1,083.3	-13.6 원
	코스피지수(p)	2,011.3	2,002.2	1,915.6	1,904.7	1,914.1	9.5 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6월말	12월말	1월 8일	1월 1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8.55	105.37	53.27	48.79	46.25	-2.54 \$
	Dubai	107.88	109.29	53.60	47.50	44.48	-3.02 \$
CRB선물지수	280.17	308.94	234.05	226.44	220.97	-5.47 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